

고흥 포두면 '환경파괴' 레미콘 공장 재추진 논란

주민 "행정소송 패하고도 짓겠다면 지역민 우롱한 것" 반발 업체 "영향평가 등 이상 없어... 피해 안가도록 준비하겠다"

고흥의 한 폐교 부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지으려다 환경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인근에 다시 공장 설립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흥군 포두면 주민 100여명은 지난 7일 고흥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하자마자 폐교 부지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다시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지역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는 곳은 마을과 가까워 분진과 지하수 오염, 식수 고갈 등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지 옆 지방 하천인 우산천은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하천"이라고 말했다.

이러 "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런 악영향을 우려해 레미콘 승인을 반대했고, 고흥군도 이를 인정해 공장 승인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업체는 2015년 욱장초등학교 폐교 부지(1만5184㎡)를 개인사업자에게 사들여 2016년부터 레미콘 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고흥군은 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천연기념물인 수달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비산먼지와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장건립을 불허했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2심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 업체는 폐교 부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며 5월 고흥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업체 관계자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소규모 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이상이 없어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환경과 개발행위 등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조양현성이 있는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 일대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군 조성면 조양현성 1.26km 타원형 석성 조선시대 군사 요새로 밝혀져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에 있는 조양현성(兆陽縣城)의 석성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군사 요새로 밝혀졌다.

보성군에 따르면 조사 용역을 맡은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는 최근 조양현성 현지 조사에서 내성 일부와 외성의 일부를 비롯한 2개의 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조양현성은 1.26km 둘레의 타원형 석성으로 밝혀졌다.

조양현성의 유래는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토성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800여m의 석성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석성이 이번 조사에서 조선시대에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장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내성)를 보호하기 위해 외성을 한 번 더 쌓은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선시대에 쓰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양현성을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755척이요, 높이가 7척이고 그 안에 우물 2개와 균창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저녁에 보성 조양창(현 조성면 고내마을)에 이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창고 곡식은 봉한 채 그대로였다. 군관 4명을 시켜 지키게 하고, 김안도의 집에서 잤다'는 대목이 나와 조선 수군의 군량미가 보성 조양창에서 보급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양현성에는 600석 규모의 균창미 저장소가 있었다.

노기욱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 박사는 "이순신 장군이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조사를 했다"며 "창고를 방어하기 위한 성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미뤄 당시 군인들이 이 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유적조사로 발견한 우물 2곳 중 한 곳이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이 샘물을 마신 곳이라고 보고 '이정근 샘'으로 명명하고 복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민임대아파트 100가구 건립 추진

구례읍 봉서리 일원 112억 들여

구례군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례읍 봉서리 일원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옆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김순호 군수의 공약에 따라 112억 원을 들여 6430㎡의 대지에 지상 9층 2동으로 건립되며 1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22㎡형 56가구, 26㎡형 12가구, 33㎡형 28가구, 48㎡형 4가구 등 4가지 형태의 주거시설로 건립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 시설도 갖출게 된다.

사업비는 총 112억 원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40%에 해당하는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0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일단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다.

2020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구례군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제 시작한 만큼 아파트 준공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군, 위탁의료기관 등 68곳서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고흥군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위탁의료기관 25개소, 보건기관 43개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에서는 22일부터 만 60세 이상 군민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접종에서 제외된 접종 희망자에 대해서는 선착순 유료(7600원) 접종을 실시한다.

보건기관 무료접종 대상은 만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

상(1959년 이전출생자) 고흥군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제외), 임신부 등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접종 솔림 현상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며 "접종 시에는 신분증과 무료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곡성군, 농업용 미생물 보급 4년새 3배 확대 올해 210t 농가 공급...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박차

곡성군이 최근 4년 동안 농업용 미생물 보급을 3배 이상 확대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수년 전부터 농업과 축산용으로 유용한 우수균주를 배양해 보급해 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생물의 효과를 경험한 농업인들이 늘면서 최근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2015년 63.5t이던 미생물 보급량이 지난해 190t에 육박하더니 올해는 210t을 넘길 전망이다.

미생물은 식품, 의약, 환경,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작물 생육, 품질 향상, 병해 예방, 축사 악취 저감 등에 효과가 있다.

군은 2014년부터 토착미생물 첨단배양시설인 저온진공배양기(1.5t)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사진>

미생물 효과를 체감한 농업인들의 수요도 늘면서 군은 지난 3년 간 기반 장비 운영과 교육을 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해 배양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배양시설이 증설되면 현재 200t 가량의 보급량을 400t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노인회관 개관... 노인 여가문화·사회참여 구심점

구례군 노인회관이 최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구례군은 최근 구례생명체험학교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 참여의 구심점이 될 노인회관 개관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생명체험학교를 활용한 노인회관 운영' 시책으로 노인회관이 들어설 구례생명체험학교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구례생명체험학교는 6802㎡ 부지에 연면적 1323㎡, 지상 1층 규모로 운영 중이며 리모델링한 주요시설로는 대한노

인회 구례군지회사무실, 노인대학동문실, 체력단련실, 실버음악연습실을 비롯한 평생학습 공간으로 100명이 수강 가능한 강의실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는 노인건강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로당 임원 교육, 노인대학 등이 운영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지원 업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